CJ헬스케어 오송공장 /CJ헬스케어

CJ헬스케어 본입찰에 한국콜마 등 4곳 참여

CJ헬스케어 매각 본입찰에 한국콜마 등 모두 4곳이 참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이날 오후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국콜마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CVC캐피탈, 칼라일그룹 등이 입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는 전날 인수적격후보(숏리스트) 대상 매니지먼트 프레젠테이션(MP)을 실시했다.

CJ그룹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CJ헬스케어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모건스탠리는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1984년 유풍제약을 인수해 제약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6년 한일약품을 인수했다. 이후 2014년 물적 분할로 CJ헬스케어가 분리됐다.

CJ헬스케어는 컨디션·헛개수 등 숙취해소 음료 매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주력사업인 복제약과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역량도 강화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각가가 1조~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수에 나서는 기업은 CJ헬스케어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하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도 적잖은 것으로 평가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대주주 바뀐 나눔로또 복권사업 지킬까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앞두고 3파전 양상
나눔로또, 유진그룹 대주주 동양 내세워 출사표
인터파크·제주반도체도 컨소시엄 구성해 도전

'나눔로또의 수성이냐, 경쟁업체의 반격이냐….'

올해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로또 등 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담당할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3파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로또(온라인복권), 연금복권(결합복권), 스피또2000 (즉석식 인쇄복권), 파워볼(전자복권)등은 연간 발행규모가 약 4조4500억원에 달한다.

복권사업자가 한 해 가져가는 위탁수수료만 500억원이 넘어 이를 놓고 신규 사업자 선정 때만되면 이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기 복권사업자 선정엔 지난 10년간 사업권을 갖고 있던 나눔로또 컨소시엄, 인터파크 컨소시엄, 제주반도체 컨소시엄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나눔로또는 유진그룹 계열인 동양이 최대주주로 KCC정보통신, NH농협은행, 카카오페이, 윈스, 인트라롯, 삼성출판사, 글로스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3연승'에 도전할 계획이다.

나눔로또는 당초 유진그룹의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이 대주주였지만 소액주주로 남고 또다른 계열사인 동양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유진기업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2014년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도덕성 요건을 더욱 강화한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또다른 계열사인 동양으로 대주주를 바꿨다. 동양의 대주주는 유진기업이다.

유진그룹측은 복권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대주주를 변경하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참에 계열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2007년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해 자금대행과 당첨금 지급업무를 맡았던 NH농협은행이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새로 합류해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 청구서, 인증, 멤버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복권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인증도 간편하게 하는 등 고객 편리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파크도 복권사업자 도전에 새로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할 주요 회사들과는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금융기관, IT 서비스 등 참여 회사들은 추후에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운영중인 복권상품〉 (단위:100만원, 1000매)

종류		명칭(상품명)	발행금액(발행매수)	액면가액	판매기간	발행주기
온라인복권		Lotto6/45	3,815,563 (3,815,563)	1,000원	1.1~12.31	매주
결합복권		연금복권	327,600 (327,600)	1,000원	1.1~12.31	매주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2000	80,000 (40,000)	2,000원	1.1~12.31	2회/년
		스피또1000	13,000 (130,000)	1,000원	1.1~12.31	3회/년
		스피또500	10,000 (2,000)	500원	1.1~12.31	2회/년
전자복권	추첨식	스피드키노	8,169 (8,169)	1,000원	1.2~12.30	5분
		메가빙고	1,648 (1,648)	1,000원	1.2~12.30	7분
		파워볼	24,703 (24,703)	1,000원	1.2~12.30	5분
	즉석식	트리플럭	15,000 (15,000)	1,000원	1.2~12.30	수시
		트레져헌터	22,000 (44,000)	500원	1.2~12.30	수시
		더블잭마이더스	10,000 (1,000)	1,000원	1.2~12.30	수시
		캐치미	10,000 (20,000)	500원	1.2~12.30	수시

/자료=복권위원회

인터파크는 국내 온라인 항공권 및 공연 예매권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로 현재 2700만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 기업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발권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2년 월드컵과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발권파트너사로 선정된 것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또다른 도전자인 제주반도체는 지불결제기업인 KIS정보통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입찰을 마감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사업자는 올해 12월2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로또·연금·즉석·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를 맡게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줄 News

정치·사회

▲ **정부**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을 돕는 도우미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된다.

▲ 서울 시내에 샤워실과 탈의실을 갖춘 자전거 보관소가 등장했다. **서울시**가 자전거 보관과 탈의·샤워도 할 수 있는 무료 시설을 광화문 등 도시 중심부에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中企기술탈취하는 대기업은 기존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올려 최대 10배를 물어주도록 강화했다.

▲ **게임업계 '3N'**가 매출 6조원 시대를 열면서 효자 부상한 '게임' 산업이 올해도 모바일로 덩치를 키울 계획이다.

▲ 마힌드라 통해 인도시장에 G4 렉스턴을 선보일 **쌍용차**가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M&M 차칸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마켓

▲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상반기 신규 채용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생한 두 지수(**KRX300·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시장수익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지수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 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 체감 물가가 커지고 있다.

▲ 평창 동계올림픽 초반 응원 열기에 **전국 편의점**의 주류, 스낵, 간편식품 등 주요 상품들의 매출이 전주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뛰었다.

서울시, 1757억 투입… 어르신 일자리 6.8만개 제공

공익활동형·시장형·파견형
양질 일자리 확대 위해 만전

서울시가 예산 1757억원(국·시·구비)을 투입해 어르신 일자리 6만8000개를 제공한다.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다.

서울시는 어르신이 경험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3개 분야로 나누어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12.4% 많은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오픈애즈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노노케어 (老老care),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관리, 경륜전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총 규모는 5만4364개(전체 사업량의 80%)다.

공익활동형은 2004년 어르신일자리사업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가능)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외에도 수익금이 지급되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올해 시장형 일자리 사업 규모는 9777개(전체 사업량의 14%)다. 주요 유형으로는 택배(지하철, 아파트 등), 공동작업(쇼핑백제작 등), 식품제조·판매(꽈배기, 만두, 반찬 등) 등이 있다.

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50+세대 52명을 '어르신일자리 지원단'으로 양성해 일자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 미수급자도 가능)에게 민간 취업 알선을 지원하거나 단기 인력파견 기회를 제공해 3082개(전체 사업량의 6%)가 추진된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구청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종 기자 joker@

인천 내항 재개발 밑그림, 지역주민과 함께 그린다

주민 참여 '개발 추진協'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한 주변 지역 통합 개발계획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신항만 개장에 따른 인천 내항 유휴화 등을 고려해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사업대상 구역은 여의도의 절반 크기인 약 4.6㎢에 달한다.

해수부는 인천시, LH, IPA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이번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18억원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3월 중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경험이 풍부한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도 참여한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를 조사해 구체적인 유치방안 등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인천 내항 미래비전 등을 담은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용역 초안 작성에서 계획 수립시까지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